

일본 지역균형발전 현장 방문으로 정책 협력 강화

- 이상민 장관,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본 방문
- 10월 12일에는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,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시찰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·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한·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2일(목)부터 10월 14일(토)까지 일본 도쿠시마현과 도쿄를 방문한다.

□ 먼저, 10월 12일에는 도쿄에서 약 650km, 오사카에서 약 170km 떨어져 있는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의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.

○ 2023년 기준 도쿠시마현의 인구는 약 69만 명으로,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 명 수준의 인구 정점을 달성한 후 인구 유출로 도시소멸의 위기를 겪었다.

○ 이후, 주민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'그린밸리'가 추진한 위성오피스* 유치, 지역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이주민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, 2007년 이후로 전입인구 하락세가 멈추었고 최근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었다.

* 본사는 대도시 등에 있으면서, 지역에 원격으로 위치한 사무실

□ 이상민 장관은 가미야마정에 입주한 16개 정보통신(IT) 기업 중 하나인 엔가와의 위성오피스를 방문하고,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가진다.

○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.

- 이어서 지역민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마루고토 고등전문 학교를 방문하여,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 등에 관해 살펴본다.
- 10월 13일에는 도쿄로 이동하여 고향납세제와 방재안전, 청사관리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한다.
- 고향납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립된 도쿄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이다.
 - 이 미술관은 지역 출신 대표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기념하는 공공 미술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를 고향납세제 웹사이트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한 바 있다.
- 도쿄 지진 발생 시 재해정보 총괄 업무와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방재 거점인 ‘도쿄 린카이광역방재공원’을 방문한다.
 - 린카이광역방재공원은 평소에는 공원으로 활용되며 재난 대비 교육 기능을 수행하지만,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방재 거점으로 활용된다.
 - 이 장관은 공원이 지진 발생 시 거점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고, 상황실 모니터링 현황과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.
- 아울러 총무성에서 관리하는 중앙합동청사 등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청사 보안상황 및 비상 대피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.
- 한편,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의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, 지방자치·균형발전 분야의 협력을 내실화하며 양국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한다.

○ 더불어,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(前) 내각총리대신 및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의 좌장이었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면담을 갖는다.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지방소멸은 한·일 모두가 직면한 문제로,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”고 말했다.

○ 또한, “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했다.

담당 부서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이방무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현 (044-205-3120)

